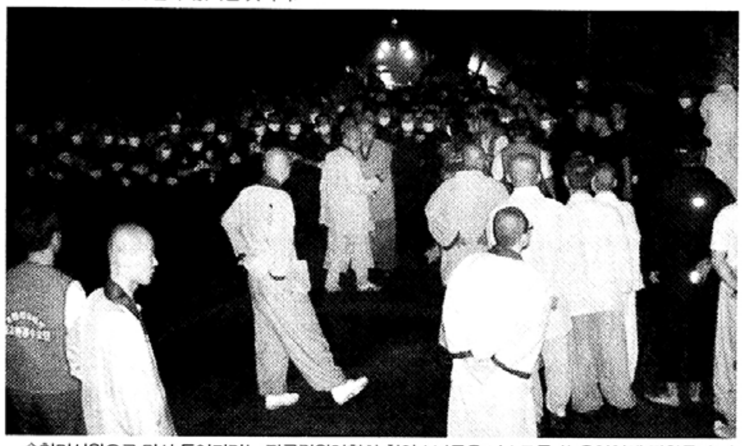
‘불교계 내분’ 호도·공사재개 포석

철마선원 난입 이유·배후 조속히 밝혀져야

25일 새벽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해 스님들이 기도 중인 철마선원에 승적을 상실한 무승적자 30여명과 용역회사 직원 90여 명이 난입,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관련해 그 이유와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로 연행된 김병호(일공, 前 정화개혁회의 호법부장) 등의 진술과 전후 과정 등을 종합해 볼때 ‘환경 수호도량 철마선원’ 을 새벽에 급습한 데는 이 사건을 불교내 분쟁으로 조작하여 여론을 호도시키고 불교계의 지도력을 약화시켜 어떻게든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철마선원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전국강원연합회 학인스님들을 마스크를 쓴 용역업체 직원들이 막고 있다. 사진제공= 불교환경연대

‘북한산 살리기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 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 · 재계와 경찰 · 용역회사 등이 결탁한 불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 부위원장 현응스님은 “이번 일은 현정권 실세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업체인 LG건설, 하청업체인 에덴건설 윤일정 사장, 용역업체인 엘리트, 승적을 박탈당한 김병호, 추장만(보성) 등이 모의해 꾸민 일이다”며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 세력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이번 사건은 누군가 스님으로 가장한 폭력배들을 앞세워 불교계 내분 양상으로 호도한 후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포석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고속도로(주)는 25일 “이번 사건이 조계종 내에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스님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병호는 연행된 후 “이번 행동은 관통도로를 뚫어 국민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자발적으로 준비했다”며 난입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용역업체 직원 1백여 명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폭력을 휘둘러 사법 처리되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철마선원 입구에서 서성거리던 승려복장의 사람들이 의정부 경찰서로 연행돼 들어가고 있다.

25일 철마선원에서 폭행을 당한 설치미술가 최병수 씨도 “철마선원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배를 구속하지 않고 방조는 물론 오히려 협조를 하는 듯한 태도를 시종일관 보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LG건설 등 시공사와 정치권, 폭력조직 간의 결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김병호가 용역업체에 선수금으로 지급한 1백만원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밝혀낸다면 배후가 누군지 진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대위 “정 재계 · 경찰 · 용역업체가 결탁”
최병수 씨 “경찰들 늑장 출동, 시종일관 방조”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 com

‘시민 저항권’ 차원 저지 ‘제2철마선원’ 으로 대처

26일 결정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판결과 관련, LG건설 등 시공회사가 철마선원을 철거하더라도 공사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환경법률센터 여영화 변호사는 “다른 단체가 철거 명령이 떨어진 철마선원 외 가까운 다른곳에 새로운 농성 건물을 짓는다면 이에 대한 건축물 철거 소송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지난 16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중지 판결’ 에 따라, 공사로 피해를 입게되는 회룡사 등이 시민저항권 차원에서 공사 진행을 막는다면 공사 재개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7일이내 철거해야 하는 철마선원의 앞으로의 운명은 제2, 제3 철마선원 개설이라는 불교계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흉기로 스님폭행 … 이럴수가”

불교 · 환경 단체들 “강력 대응” 일제 비난 성명

철마선원 폭력사태에 대한 불교계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다.

사건 발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계종과 북한산 살리기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폭력배들이 수행자를 흉기로 폭행하는 이번 사태는 너무나 충격적이다”며 “이번 사태를 법난으로 간주하고 시공회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계 단체들도 일제히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과 배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 · 사회 단체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실련,국립공원지키는시민의모임, YMCA, 문화개혁시민연대, 우이령보존회, 환경운동연합, 조계종공대위 등 23개 단체도 26일 ‘북한산 농성장 폭력행위 진상조사 대책위원회’ 를 구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에 자금을 댄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해결은 정부와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새로운 국면 진입

법원, 철마선원 철거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이 26일 서울고속도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철마선원 등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서울고속도로가 법원집달관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이 관결되는 대로 법률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서울고속도로(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철마선원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이끌어내고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조계종 공대위’ 는 “많은 환경 · 시민 단체와 국민의 여론, 언론 · 방송까지 북한산국립공원을 보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이의신청 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따라서 회룡사와 홍법사 구간에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중지’ 판결을 근거로 공사 중지와 우회노선 검토위 결성 등을 촉구하는 불교계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단행’ 판결을 근거로 공사를 재개하려는 LG건설 등 시공사와의 대결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유신 기자

야외 석조문화재 보호 시급

내부 유물 노린 도굴꾼 부도 등 잇달아 훼손

◇고달사지 부도의 훼손 전 모습.

◇도굴꾼들의 훼손후 상륜부 보주와 보개, 귀꽃 한 개가 사라졌다.

최근 국보 4호인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 부도가 도굴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외에 있는 석조 문화재의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20일 “고달사지 부도 내부의 유물을 노린 도굴꾼들이 지붕돌(옥개석)을 들어 내려다 부도 윗부분(상륜부)의 구슬 장식(보주)과 덮개 장식(보개)이 땅에 떨어져 조각났고, 지붕돌 귀퉁이를 장식하는 귀꽃 한 개도 부러졌다”고 밝혔다. 특히 덮개 장식은 가로, 세로 15cm의 3조각으로 파손됐으며 한쪽 면에는 심한 균열이 생겼다. 또 도굴 때문에 부도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다.

도굴군에 의한 부도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3월에는 국보 54호 전남 구례 연곡사 부도가 역시 도굴군에 의해 부도 윗부분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굴꾼들이 이처럼 탑과 부도를 노리는 것은 탑과 부도 속에 안치된 불경이나 불상, 사리함 등의 문화재를 탐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탑이나 부도 등 대부분 석조 문화재는 일반인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산 속에 있거나, 관리인조차 제대로 없는 폐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뚜렷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영호 문화재위원(한국교원대 명예교수)은 “몇몇 시행하고 있는 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폐사지의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이장이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인으로 위촉해 문화재를 매일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고달사처럼 규모가 큰 절터의 경우 절이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발굴조사가 끝난 폐사지 근처에 조그만 절을 지어 스님들이 상주하면서 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서 관리인 위촉 제도화
폐사지에 적은 절 건립 스님이 관리케

이와 함께 문 교수는 한때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최근 없어진 관리인 제도를 예로 들며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안에 정책 개발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도굴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문화재를 ‘돈’ 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도굴꾼들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02년 1월 현재 석조 문화재는 64점이 국보로, 447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으며 국가 지정 건축물 문화재의 80%와 보물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 com

제 1기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 전수생 및 학인 모집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는 전수생 및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연수반(1 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법고)다루는 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사십구재 전과정)(점안식)

전수반(2 년) 상주권공, 각배, 영산, 천수바라, 춤, 나비춤, 법고춤(전과정)
※ 전수반은 연수반 수료자거나 동등의 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함.

◈ 교수진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10호 보유자 박일초 스님 직강

● 모집인원 : 00명 수시모집 (팩스접수 가능)
● 매주 강의 요일
연수반 : 월 · 수 (오후 3시 ~ 5시)
전수반 : 화 · 목 (오후 3시 ~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접수기간 : 2002년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 개강일자 : 2002년 8월 26일 오후 3시

● 본교는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전통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우리은행 120-188157-02-201 예금주 : 이 영 숙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2-8 다원빌딩 3층(강서보건소 옆)
전 화 : 02)3665-0557 / 032)523-8067(인천)
FAX : 02)3665-0546 / 032)523-8066
H · P : 011)788-2929

인천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 나비춤. 서울전수관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 장 박 일 초